

# “지역문화 정체성 살리는 사업 펼칠 터”

## 이만구 신임 문화원장 취임사에서 밝혀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는 이만구 신임 문화원장.

포천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6일 오전 11시 유림회관에서 열렸다. 이정렬 부시장, 김중기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문화원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취임식에서 신임 이만구 원장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헌신해 온 숨어 있는 일꾼들을 발굴해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위해 실시하는 제5회 부산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김 교수는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주요공적은 개인 작업과 각종 문화행사의 성과, 후진양성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최고의 조각가로 인정받았다. 특히 김 교수는 미술부문의 개

취는 생활문화 즉 지방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독특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각종 문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참신하고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문화원으로 만들겠다”는 등 문화사업의 방향을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을 함께 가진 이승우 전 문화원장은 이취임사를 통해

“본인으로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1년 조금 남짓한 시간이었는데 떠나게 되어 무거운 감회를 가눌 수 없다”며 “문화원 임원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도움으로 대과 없이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승우 전 원장에게는 문화원 회원 일동이 증정하는 감사패,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전달하는 공로패 등이 수여됐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포천의 명현탐구 (91)

## 이지란(李芝蘭) · 1331(고려 충혜왕)~1402년(태종2)



리효종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청해이씨(靑海李氏)의 시조이며 조선조 개국공신으로 자는 식형(式馨), 본성은 퉁, 남송(南宋) 악비(岳飛)의 6대 손이다.

원나라의 장수로서 천호(千戶)의 벼슬공민왕에 있다가 고려 때 부하를 이끌고 귀화하여 북청에서 거주하면서 이씨의 성과 청해를 본관으로 하사 받았다.

1392년 조선건국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고 청해군(靑海君)에 봉해

## 조선조 개국공신으로 이성계와 결의형제 청해사(靑海祠) 포천향토유적25호)에 배향

그 후 이성계(李成桂)의 편장(偏將)으로 1380년(우왕6) 황산에서 왜구 아지발도(阿只拔都)가 이끄는 대군을 무찔러 황산대첩(黃山大捷)을 이루었으며 1385년(우왕11) 이성계 휘하에서 함주(咸州)의 왜구를 토한 격과하여 선력좌명공신(宣力佐命功臣)에 봉해지고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임명되었다.

1388년(우왕14)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에 참가하여 1390년(공양왕2) 밀직사(密直司)가 되었다. 같은 해 서해에서 왜구를 격파 판도평의사사(判都評議司事),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에 임명되었다.

1388년(우왕14)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에 참가하여 1390년(공양왕2) 밀직사(密直司)가 되었다. 같은 해 서해에서 왜구를 격파 판도평의사사(判都評議司事),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에 임명되었다.

남정(南征) 북벌(北伐)에서 많이 살상한 것을 크게 우우쳐 불교에 귀의하였다.



▲ 이지란 영정

### ◆ 청해사(靑海祠) 포천향토유적25호

조선 개국공신이며 청해이씨의 시조인 이지란 선생과 그의 후손 정사공신 이충노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향을 모시는 사당이다.

1970년 추동리 389번지에 건립된 이 사당은 대지 150평에 맞배지붕 목조기와 건물이 있으나 목재의 부식으로 2000년 4월 16일 현위치에 신축하였다. 청해사의 향사는 매년 음력 3월 10일이다. 이충노 선생은 조선중기의 무관으로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이 되었고 이괄의 난에서 전사하였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장이며 금천 만중사에도 배향되었다.

## 포천출신 김광우 교수 부산문화대상 수상 부산바다미술제 부산비엔날레 성공 공로 인정

포천출신으로 부산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광우 교수(63)가 부산문화방송이 지역발전에 헌신해 온 숨어 있는 일꾼들을 발굴해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위해 실시하는 제5회 부산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김 교수는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주요공적은 개인 작업과 각종 문화행사의 성과, 후진양성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최고의 조각가로 인정받았다. 특히 김 교수는 미술부문의 개

인적 활동 뿐만 아니라 부산 바다미술제 부산비엔날레 등 부산의 대표적 미술제를 통해 세계속의 부산을 부각시켜 부산의 미술수준을 향상하고 효과적인 문화행사를 이끌어 온 역할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부산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예심과 30일 본심을 거쳐 시민과 단체장이 추천한 49명의 수상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조각가 김광우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5시30분 부산 MBC시네마홀에서 개최되

며 부산MBC가 시상식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김광우 교수는 지난 1990년 제4회 바다미술제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2000년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바다미술제 운영위원장, 2002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전시감독, 2003-2004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및 부산조각프로젝트 전시감독, 1999년 (사)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발기인, 2004년 (사)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선출직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 김광우 부산동아대학교수 (연락처: 051-293-7269)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94)

## 광릉수목원과 건강



소름을 직동리에 위치해 있는 광릉은 조선조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다. 광릉보다도 수목원으로 더 알려져 있다.

광릉은 세조가 봉어하기 전, 재위 시 능 자리를 미리 정해 놓고 보호했기 때문에 울창하게 보존되었다. 1913년 일제 치하에서 시험림으로 지정되었다가 해방 후, 입업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87년 산림박물관과 함께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1989

년에는 산림육종이 개장되면서 산림교육과 휴양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총면적 2240ha(시험림: 1723ha, 수목원 500ha)로 자생 동·식물의 자생지로 서식지로 유명하며 동물 2,881종, 식물 983종(나무 292종 풀691종)에 이른다. 수목원의 조성 목적은 첫째, 산림의 자연학습 교육장, 둘째, 산림조성과 영구적 보전(保傳) 셋째, 88올림픽의 개최 기념이라 할 수 있으며 1983년~1986년 총공사비 68억원을 들여 1987년 4월 5일에 준공되었다.

수목원은 (1)수목원(500ha)에 15개 전문수목원: 목본 1716종 초본 1059종) (2)산림박물관(지하층 지상2층 5개 전시실과 특별전시실, 시청각실, 자료실, 표본실 (3)산림육종(2.4,6,8km코스,

조각이 있는 숲, 명상하는 숲 등)(4)야생동물원(면적 100ha: 126종 보유)등 4개처로 구분되어 있어 세계적 규모로 한국의 자랑거리이자 내 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산림육종은 언어 장애도 말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즈음 일본에서 자폐아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수목원 내에는 시각장애자용 수목전시장이 있을 정도이며 산림박물관은 입체 전시 형태이고 암석, 석재 이용까지 총망라되었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거중기까지도 전시될 정도이니 그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특히 수목원 자연 숲은 우리 한반도의 두 곳(광릉수목원, 송악산:개성)만 서식한다는 크나 새(물라새)의 서식지라는 점에

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야생동물원에는 백두산 호랑이와 같은 종류의 시베리아 호랑이를 수입하여 사육하고 있어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수목원 경내나 산림 육종을 거닐다 보면 가래, 밤, 도토리, 가압, 알이 머리위로 떨어져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된다. 숲 속을 자세히 보면 기와버섯, 가압버섯, 피꼬리버섯, 밀버섯, 향아리버섯, 짜리버섯이 고개를 내밀며 반기며 가끔 산삼이나 송이버섯이 발견되어 놀라는 가슴을 쓸어 안게 된다.

이루기 어려운 사랑도 광릉 숲을 거닐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어 재미 있다.

여명기의 소설가 이광수님이 광동 산림고등학교에 재직(1945년) 하실 때 이 숲을 거닐었다고 하며 수도 서울의 학생들은 사철 이 곳으로 소풍을 다녀 간다. 아직도 광릉수목원을 못 가보셨다고요? 당신은 포천사람이 아니시군요. 사랑에는 이웃과 함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광릉수목원을 다녀 오시라.

☞ 필자연락처 : 02)932-2434

## 시립합창단 첫 번째 정기연주회 가져

### 22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서



▲사진은 시립합창단의 모태가 된 한대여성합창단의 공연하는 모습.

지난해 포천시승격과 함께 창단된 포천시립합창단이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22일 오후 7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시립합창단의 위상정립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창단공연을 겸해 열린다.

종교곡 모음, 트럼펫 솔로, 이태리민요와 한국 민요, 테너독창 바리톤 독창, 바리톤 테너 이중창, 가요모음곡과 세계모음곡 등 다양한 선곡과 연주를 통해 각계각층 청중들과의 감성교류 및 일체감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더욱 주목되고 있다.

또 트럼펫 정문산(롯데월드 음악감독) 연주자, 테너 류승각, 바리톤 백경현 등이 특별출연한다. 포천시립합창단은 4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27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일본 동경 다카네회 합창단과의 한·일 합동 공연을 한 바 있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530-8938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HD, PE원단생산·쇼핑백·비닐인쇄가공전문·각종 공업용포장자재 총판

# ‘대일비니루총판’



- |        |       |
|--------|-------|
| 비니루    | 랩     |
| 락카     | 장화    |
| 이형제    | 물장화   |
| 실리콘    | 보투    |
| 면장갑    | 작업복   |
| 반코팅장갑  | 보호테이프 |
| 원전코팅장갑 | 각종테이프 |
| 고무장갑   | 각종끈   |
| PVC장갑  | 수동밴드  |
|        | 자동밴드  |
|        | 마대    |
|        | 마스크   |

## PP,PE,하이덴/ 농·공업용 필름생산/인쇄/가공/공업용 포장자재 일절

대방아파트 50일  
 ←의정부 포천→  
 대일비니루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4-1  
 전화 : 031)544-3627 // 팩스 : 031)544-3627  
 휴대폰 : 011-9070-3627 // 대표 : 김 영 재